'73年度 建築 展望

金 寬 豊

(서울 건축사 합동기술개발공사
김관풍 건축 연구실)

現在 서울 시내에서는 地下鉄 工事 및 道路 확장 공사등 몇년간에 갑작스럽게 비대해진 巨大都市의 마무리(?) 工事가 계속되고 있다.

10여년전 5.16혁명후 経済開発 計画에 의한 国力 増強의 발돋움이 시작된후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成長 過程에서 経済発展과 새로운 社会秩序의 安着은 社会, 経済, 政治등 모든 面에서 急激한 変貌를 가져 온 것은 우리가 다 아는 事実인 바다.

住宅難이 極甚했던 5.16直後 庶民層을 위한 大規模 市民아파트 建設, 都市成長과 安定된 都市社会는 人口 都市 集中化 現象을 낳고 이에 번두리 地域의 拡張등 住宅 団地의 難立, 이에 따른 交通滞症 現象의 解決策이 高架道路 및 地下道 陸橋등 이러한 連鎖反応的인 計画, 推進, 樹立, 着工, 竣工에 의한 全 国土의 産業化는 京仁, 京釜, 湖南高速道路와 같은 大單位 建設工事를 보게 되었고 이에 연결된 각 地方都市의 工業化 및 産業化 建設등 불과 10년 동안 外形的으로 나타난 建設의 実積은 놀라운 비약이라 아니할 수 없다.

외국의 예를 보아도 「이제 국가는 완전 건설 되었다」는 얘기는 세계의 어느 나라 어느 都市에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고 또 있었던 사실도 없다. 国家는 恒常 成長하고 있고, 넓은 意味에서 急変하는 科学文明과 좁은 意味에서의 経済, 社会, 政治등에 直結되어 크게 変貌해 가는 것을 보아왔다.

그러나 나는 위에서 記述한 바와 같은 業積및 国力増強에 기여한 듣기 좋은 사항 만으로서 우리가 이룩해 놓은 国家 発達의 要因이 되는 建設物들이 그저 적당히 얼버무릴 수는 없다고 본다.

단지 그전보다 発展했다는 図表의 比較에서 安逸하게 있을 수 만은 없는 것이며 또한 国力의 差를 無視하고 経済 所得이 높은 先進国의 都市像, 建設像을 아무렇게나 直輸入해서 幻想的인 形態로 摘用시킬 수는 더우기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나는 이러한 矛盾들을 안고 成長해 온 建築 붐의 過程과 現況을 살펴보고 比較하여 73년도의 建築展望을 打診해 볼까 한다.

1. 지나온 발자취

사실 60年代 초반부터 일기 시작한 建築붐이 거센 経済成長의 파도를 타고 急激한 変貌를 갖추면서 그 絶頂에 달한 것은 1971年 初부터 始作된 不況 以前의 일이다.

물론 서울을 비롯한 各 都市에서의 変貌와 農漁村의 変貌 現狀은 심한 차이가 있어 1971年 이전의 農漁村에 있어서 建築은 별로 눈에 띄우는 것은 아니었다.

우선 서울을 비롯한 各 地方都市에서의 変貌 過程을 살펴 본다면 앞서도 말한 바와 같이 自然的인 人口 増加와 経済 成長에 따른 人口 및 物量의 都市 集中化 現狀에 따라 여러가지 建設들이 活発히 進行되어 왔고, 그 上半期는 住居를 위한 建築부터 始作 됐다.

60年代 上半期만 해도 住宅難은 数年째 계속되왔으며 経済成長에 따른 国民 所得의 増大와 이로 因한 国民生活의 質的 向上과 그 정도는 서서히 成長해온 先進国의 그것보다 더욱 과감했던 것 같다.

물론 戰後의 復旧作業의(?) 始作이 政治的 混乱속에서 잠시 늦추어 졌었고, 이제 과감히 安定된 社会속에 뛰어들면서 부터 그 지루함과 권태로움에서 탈피하려는 이유도 있었겠지만, 아무튼「住宅難」「国民所得 増大에 따른 遊休資本 蓄積과 그 投資」「国民 知的 水準 向上에 依한 보다 나은

住居空間의 渴求」等이 經濟開発 1.2.3次 計劃에 依한 政治, 経済, 社会의 急激한 発展과 함께 住居를 위한 建築이 始作된 原因이라 하겠다.

처음에는 그 形態도 独立住宅 程度로 構造도 별다른 特異性없이 「셋방에서의 탈피」 정도의 여유로 시작 했었겠지만 中半에서는 변두리 地域에 잘 造成된 住宅団地며, 高級住宅이 점차로 進化된 過程으로 変貌해서 소위 「도둑촌」이나 「도깨비촌」과 같은 호화로운 住宅들이 建築됐고, 不動産 価格의 急上昇으로 因한 아파트, 연립주택 등으로 변모해 왔다.

下半期에 들어서면서 부터 住居를 위한 建築의 全盛期를 같이 하여 経済 및 社会를 위한 建築 으로서 변두리 地域의 工場建築, 都心地의 経済作業空間인 市場, 商街, 百貨店, 銀行 等의 建築, 그 중에서도 都市中心地의 빌딩들이 점차 高層化 되기 시작한 것은 経済急成長으로 인한 経済 作業空間의 不足과 不動産 投資의 好景氣가 그 要因이기는 하나 建築붐에 따른 各種 建築 資材의 剩餘生産과 遊休資本의 即興, 一時的 過剩 投資에서 온 보다 重要한 原因들이 많은 問題点들을 야기 시켜 놓았다.

한편 農漁村의 変貌 現狀은 60年代 下半期의 第3次 経済開発 計劃에 따른 全国土의 産業化에 의해 서서히 일기 시작 했으며 더우기 각 高速道路의 建設은 보다 都市와 가까와졌고 全国을 一日生活圈으로 단축해서 経済 成長에 있어, 2時間의 効用이 이루어 짐에 따라 急成長 過程에 있었다고 본다. 더우기 72年 中半부터의 새마을 사업의 시작으로 인한 72年까지의 農漁村에 있어서의 建築은 그 全盛期에 들어선듯 하다.

이와 같이 서울을 비롯한 各 地方都市에서의 建築과 農漁村에서의 建築 現況에서 우리는 安定된 政治, 経済로 인한 모든 産業의 発達과 好景気 의 물결속에서 이와 뗄 수 없는 관계처럼 建築도 成長한 것을 알 수 있고, 外国에서 経済 変動에 따른 建築投資를 잘 살펴보면 建築界의 好景気가 一般의 주요한 景気 보다 선행(先行)되어 온 것을 볼 수 있듯이, 거듭 成長해온 建築 붐이 우연한 것은 절대 아니며, 모든 好景気에 의한 急成長에서 빚어진 過誤와 問題点들을 안고, 世界的인 不況과 함께 잠시 멈추어 왔다.

2. 73년도의 전망

이제 우리는 지난 두해 동안의 不況속에서 経済的으로는 그 打開策과 政治的으로는 그 安定性을 갖추어 왔다. 72年末까지의 모든 경제 成長은 不況에도 그 目標額을 無難히 넘길 수 있는 安定 性과 그 基盤을 닦았고 世界的인 解氷 무드 속에서 南北間의 対話가 오가고, 이제 戰爭의 不安도 좀 처럼 없을 것 같이 생각되어졌으며 끊임없이 추진되어온 보다 잘 살기 위한 운동의 구체화가 10月維新으로의 뚜렷한 理念的 計劃과 日程이 세워졌으며 80年代의 100億弗 輸出과 1000弗 所得의 뚜렷한 目標가 設定됐다. 이러한 밝은 希望 속에서 그간의 不況에서 얻은 成長系列의 가다듬과 技術向上의 뒷 받침으로 보다 計劃性 있고, 보다 高次元的인 成長을 눈앞에 그리며, 새로운 成長의 始発点인 73年의 새해를 맞은 것이다.

그간 10余年 동안의 急成長에서 外形的으로 나타난 建築은 大都市로서 – 중진국으로서의 체면과 住宅難의 解消, 収用設備의 充足등 그간의 業積은 실로 크다 아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한없이 치솟기만 하던 高層 빌딩군의 誕生과 앞을 다투어 難立하던 아파트群은 이제 그 需要者의 不足마져 갖어오게 됐고, 경제 急成長에 발 맞추지 못한 都市計劃의 飜覆된 計劃과 施工등은 씻지 못할 誤点들을 남긴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반성 한다는 것이 앞으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다」는 真理도 배웠고 反省에서 느낀 그 結果는 매우 신중한 態度로 다루어 지게 된다는 것도 알았으며 또한 反省한 결과의 실천 과정이 쉽게 実行되지 않으리라는 것도 直感的으로 나마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속에서도 完全한 社会間接資本과 実物資本의 蓄積量을 確保치 못한 開発途上에 位置한 現在 80年代 維新的 課業의 目標인 先進国 으로서의 달림길엔 보다 많은 需用 設備로서의 建設投資 를 끊임없이 要求할 것이며, 더우기 維新課業의 重役을 맡을 建設인 点을 보더라도 또다시 建築붐을 일으킬 可能性은 짙다고 보나 지난날과 같이 無秩序하고 혹은 無知力한 상태로서의 建築붐이나 好景気의 過剩投資 현상은 없을 것이며, 그 과정은 제멋대로만 자라 한여름철에 피는 넝쿨 장미가 아닌 숙련된 庭園師에 의해 잘다듬어 지고 잘린 가지의 아픔을 참고 견뎌 오래 오래 계속될 연이은 꽃망울의 탐스러운 장미처럼, 장엄한 情熱 이어야 할 것이다. —끝—